

91 시멘트 決算書

金 淳 三

〈韓國洋灰工業協會 企劃課長〉

1. 概 況

금년 우리 經濟는 88년 이래 지속적인 건축경기의 호조와 활발한 設備投資에 힘입어 연초의 예상을 上廻하는 成長을 이룩하였으나 消費者物價 상승과 輸出增加率을 크게 뛰어넘은 輸入增加로 인한 무역적자의 급증으로 經濟安定化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提起되었던 한 해이다.

더욱이 수출시장에서의 국내업체들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시장은 경제개방화 폭의 확대로 내수시장이 잠식되고 있어 貿易收支赤字가 100억불을 넘어설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過消費風潮 및 勤勞意慾低下는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끌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업계는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西海岸開發, 地下鐵工事, 工業團地造成 등 社會間接資本擴充事業과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의 본격추진에 따라 시멘트 수요의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져 시멘트 需給不安은 연중 계속되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업계는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즉 需給對策班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대형 건설업체 및 대형레미콘업체에 대한 벌크시멘트 공급을 감축하여 포장시멘트 공급을 확대하고 포장시멘트의 경우 假需要를 막기 위한 現品引度方法을 변경 시행하였으며 品質現狀을 보이기 시작한 4월부터는 다수의 實需要者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直販制를 작년에 이어 계속 실시하였다. 또한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

양지역에 시멘트를 집중 공급하는 한편 업계 공동으로 905천톤의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여 각사 거래처에 原價에 판매함으로써 시멘트 需給安定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 또한 建設景氣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人力難과 建築材難을 가중시키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신축까지를 제한한 5월 3일과 7월 9일 등 네차례에 걸친 建設景氣鎮靜對策을 발표 추진한 결과 하반기부터는 建築景氣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아파트의 미분양사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건축경기 鎮靜效果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작년 6월 이후 許可制限에 묶인 건축물이 대부분 近隣生活, 업무용시설로서 내년에 허가가 풀릴 경우 시멘트 수급상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국내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업계에서는 新·增設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東洋시멘트는 2,500천톤 규모의 삼척 7호기의 증설을 93년 3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雙龍洋灰는 동해 1호기 개체작업을 92년 6월에 완공하여 1,500천톤의 生産能力을 증대시킬 계획이고 韓一시멘트는 1,550천톤 규모의 단양 6호기의 증설을 93년 초 완공예정이며 現代시멘트는 年産 1,980천톤 규모의 영월 1호기를 금년 말 완공예정으로 건설 중이다. 또 高麗시멘트도 93년 3월 완공예정으로 1,550천톤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星信洋灰는 623천톤 규모의 改造工事を 추진, 92년 3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漢擎시멘트가 옥계항에 연간 5,000천톤 규모의 荷役能力을 갖춘 시멘트 전용항을 건설함으

로써 국내 시멘트 需給圓滑化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금년 한 해의 需給狀況에 대하여 살펴본다.

2. 需 給

올해도 작년과 같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供給能力의 한계로 시멘트 수급은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다. 91년에 들어와서 건설경기의 先行指標인 建築許可延面積의 增加勢가 둔화되어 3월부터는 전년동월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住宅部門 建設受注額의 증가세가 쉽게 둔화되지 않음으로써 上半期 중 內需증가세는 여전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수출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수입割當關稅 혜택을 부여하여 수입을 촉진하는 등 물량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올 상반기의 內需量은 작년 상반기에 비하여 36.0%나 증가한 20,255천톤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생산시설을 풀가동하여 수요에 충족하여야 했으며 施設補修까지도 최대한 연기하여 需給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輸出入부문에서는 輸入을 연계한 輸出推薦制, 輸入促進을 위한 割當關稅制 실시로 輸出은 감소된 반면 輸入은 상당히 늘어나 국내수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輸出은 물량의 한계로 기존 거래선에 대한 최소한의 輸出移行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고 수출지역도 거의 일본에 편중되었으며 업계는 海外市場管理를 위한 수출쿼터량 확보를 위하여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입을 늘려야만 했다. 올 수출실적은 전년보다 8.5% 감소한 1,786천톤에 머물렀으며 수입소비를 포함한 총내수는 前年對比 28.3% 증가한 43,494천톤을 기록하였다.

1) 生 產

금년의 크랑카 생산은 34,892천톤으로 前年對比 19.2%, 시멘트는 38,324천톤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다. 이 시멘트 생산을 分期別로 살펴보면 1·4분기 20.6%, 2·4분기 15.1%, 3·4분기 12.8%, 4·4분기 9.7%로 4·4분기를 제외하고는 10%를 넘는 큰 증가를 했다. 이는 90년 下半期 중 증설공사가 완료된 생산시설이 91년 上半期 중 대부분 정상 가동된데 기인한다. 業體別 生産

實績을 보면 漢拏시멘트가 2,149천톤으로 前年對比 56.4%나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이 성신양회, 한일시멘트로 각각 39.6%, 28.5% 증가한 3,594천톤, 4,173천톤에 이르렀다. 星信洋灰는 전년도에 수해로 인해 생산이 저조했던 것이 완전복구되면서 생산이 증가되었고 漢拏시멘트의 경우 증설된 3,630천톤 규모의 시설이 시험운전 중이어서 생산이 能力보다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2) 內 需

시멘트 需要는 전적으로 建設景氣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으로 87년 下半期 이후 不動產景氣의 회복과 함께 시작된 建設景氣 과열양상이 올해도 지속됨에 따라 前年對比 28.3%나 증가한 43,494천톤에 이르렀다. 이를 分期別로 살펴보면 1·4분기 32.0%, 2·4분기 39.9%, 3·4분기 30.0%, 4·4분기 14.2%로 4·4분기를 제외하고는 30%를 상회하는 폭증현상을 나타냈다. 이는 非需期인 1,2월의 異常暖冬과 정부의 주택보급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및 社會間接資本投資의 증대 등에 기인한다. 建築景氣의 指標를 나타내는 建築許可延面積을 보면 금년 상반기에는 59,279천 m^2 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는데 특히 주거용은 32,643천 m^2 로 동기간 중 5.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9월까지의 建築許可延面積은 89,016천 m^2 로 90년 89,393천 m^2 보다 0.4% 감소하였다. 이를 用途別로 보면 住居用 52,094천 m^2 , 商業用 21,880천 m^2 , 工業用 8,360천 m^2 , 文教·社會用 3,534천 m^2 , 기타 3,149천 m^2 로 각각 0.5%, Δ 0.8%, 5.8%, Δ 0.5%, 39.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90년 한 해동안 49.3% 증가했던 住居用 建築은 정부의 건설경기진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5·3 건설경기진정대책, 7·9 신도시 종합대책, 9·4 및 9·28 주택건설억제방침) 등으로 인하여 91년에는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季節的 出荷實績

시멘트는 상품의 特性上 需要의 季節性이 뚜렷하였으나 최근 이 같은 추세는 점차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설경기의 과열로 인해 필요한 시멘트를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없게 되자 비수기에 물량확보를 위한 가수요가 발생하고 異常暖冬

과 冬節期の 工事強行 등이 주요인인 것 같다.

금년 국내의 월별 需要動向을 보면 1,2월에만 월평균치를 밑도는 실적을 보이고 3~12월은 이를 상회하고 있어 非·盛需期가 구분은 되고 있으나 과거 10년간의 季節指數를 놓고 볼 때 그 겹은 차츰 완화되고 있으며 非需期가 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중 최성수기인 4,10월은 각각 3,410천톤, 3,658천톤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였고 특히 10월의 내수 3,658천톤은 月間 史上最大 기록이다. 이는 일평균 약 118천톤이 출하된 셈이다. 半期別 出荷構成比는 上半期 17,648천톤, 下半期 19,390천톤으로 연간 내수물량의 각각 47.6%와 52.4%를 점하고 있어 하반기에 다소 수요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연중 最大非需期인 1,2월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분기별로는 2·4분기 중 9,940천톤을 기록하여 피크를 보이고 있다. 이는 2·4분기 중 취해진 建設景氣鎮靜對策의 영향으로 그 이후 분기의 건축경기가 다소 둔화된 때문인 것 같다.

(2) 需要部門別 및 品種別 出荷實績

內需出荷를 需要部門別로 보면 民需 93.6%, 官需 6.4%로 前年の 민수 92.7%, 관수 7.3%였음을 고려할 때 매년 민수 비중이 급증하면서 수요를 주도하는 한편 관수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어 前年對比로 보면 민수는 0.9% 포인트 증가했고 관수는 0.9%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總消費物量의 증가에 비해 관수물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不要不給한 관급공사를 연기한 결과로 분석된다. 品種別 出荷實績을 보면 벌크시멘트의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어 수요패턴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금년의 벌크출하는 24,741천톤으로 國內產 總出荷의 66.8%로 전년도의 66.5%보다 0.3%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절대량으로는 17.0% 증가하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수기인 1,2월과 需給狀況이 어려웠던 7,8월이 각각 64.6%, 64.2%, 66.0%, 65.8%로 平均值보다 낮았다.

이러한 벌크화율의 증가추세는 시멘트 이용면에서의 대량소비, 기계화 및 레미콘 사용의 일반화와 연결될 수 있는데 國內建設需要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레미콘에 대한 수요도 매년 증가하여 왔다. 시멘트 물량의 레미콘 전환율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균질의 콘크리트를 대량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生産할 수 있고 人件費를 절감하고 工期를 단축할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벌크화율의 향상은 輸送效率의 增大, 保管管理의 용이, 流通의 單純化, 荷役費用 및 包裝費用의 절감과 消費者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 이점이 많은 바 벌크화율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在 庫

90년 말 568천톤의 시멘트 在庫를 이월받은 91년은 비축기인 1,2월에도 이상난동으로 인한 예상 외의 내수 증가로 인하여 在庫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盛需期를 맞이해 연중 수급에 크게 고심하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축기인 2월의 1,496천톤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在庫는 11월 443천톤으로 最低值를 기록하였다. 연말에는 534천톤 정도가 예상되어 금년 초와 같이 수요가 폭증한다면 92년 盛需期를 대비한 적정수준의 이월재고는 부족한 양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비수기인 내년 1,2월 중에 생산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3. 輸出入

시멘트 산업은 大規模 裝置産業으로서 需要變動에 대한 생산량 조절에 의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국내 단기적 需給不均衡을 輸出入 物量으로 조절하고 있는 바 88년 이후 內需의 好調로 장기거래선 유지를 위한 수출을 제외하고는 내수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輸出實績이 크지 않았다. 금년에도 계속되는 시멘트 공급부족으로 정부는 더욱 강력한 輸出抑制政策을 펴서 수출은 1,786천톤에 그친 반면 수입은 6,466천톤 정도가 예상된다. 금년 輸出은 크렁카와 시멘트를 합하여 出荷基準 1,786천톤에 머물러 전년도의 1,952천톤에 비하여 물량으로 166천톤, 比率로는 8.5%나 감소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地域別 輸出을 보면 일본지역으로의 輸出이 전체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輸出統制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존거래선을 상실하였고 주수출선인 일본시장도 거래관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주요

91년 시멘트 需給總括

(單位: 천톤)

		90	91	전년비(%)	
크링카	生産	29,281	34,892	119.2	
	輸出	389	476	122.4	
시멘트	生産	33,575	38,324	114.1	
	需內需	民需	29,479	34,668	117.6
		官需	2,324	2,370	102.0
		計	31,803	37,038	116.5
	要輸出	輸出	1,563	1,310	83.8
		計	33,366	38,348	114.9
在庫	크링카	558	620	111.1	
	시멘트	568	534	94.0	
	計	1,126	1,154	102.5	
輸入	크링카	1,558	103	6.6	
	시멘트	2,116	6,363	300.7	
	計	3,674	6,466	176.0	
輸入시멘트 包含 總內需		33,904	43,494	128.3	

註: 1) 91년 12월은 추정치. 2) 수입시멘트 중 91년 내 수גיע 6,456천톤으로 추정.

수출업체인 雙龍洋灰의 경우 일본에 연간 1,200천톤, 미국에 300천톤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다. 일본에는 輸出制限措置 이전(1990.5월)에는 거래선이 270여개에 이르렀는데 輸出制限措置 이후 70여개로 줄어들었으며 그나마도 공급물량이 적은 관계로 合作先으로부터 거래관계 청산요구를 받고 있고 미국에는 合作現地工場에도 물량을 거의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미 상대 거래선과의 신뢰가 무너져 다시 거래관계를 맺는데는 상당기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東洋시멘트의 경우는 일본에 월 100천톤 정도 공급해야 하나 월 40~50천톤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輸出制限措置를 살펴보면 작년엔 수입실적의 50%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2월엔 월 160천톤씩 수출할 수 있게 풀었으며 3월엔 수입한 물량만큼 수출할 수 있게 했다. 4월 들어선 需給事情이 악화되자 다시 수입한 실적의 50%만을 수출할 수 있도록 規制를 강화했으며 10월부터는 前月輸入實績 범위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게 하였고 수급사정이 조금 완화된 11월부터는 200천톤내에서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계는 그동안 상실했던 수출시장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시멘트 輸入은 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입물량이 작년 3,674천톤(크링카 수입 1,558천톤 포함)보다 무려 2,792천톤이나 늘어난 6,466천톤(크링카 수입 103천톤 포함)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상건축경기와 맞물린 내수증가와 정부의 시멘트 수입 장려 결과로서 전체 시멘트 내수량 43,494천톤의 14.9%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시멘트 輸入史上 最大物量을 기록하였다. 輸入地域은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소련, 아랍트후국 등에서 수입하였다. 전체 수입물량 중 30.5%인 1,942천톤은 업계가 수출을 위하여 수입한 것이며 55.3%인 3,516천톤은 貿易商社에서, 14.2%인 905천톤은 業界에서 국내 시멘트 수급에 기여하고자 수입한 것이다.

결국 시멘트 輸出推薦制와 輸入割當關稅制는 國內需給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輸出面에서는 동남아시아, 호주, 미국 및 남태평양 등의 수출시장을 거의 상실케 하는 한편 국내 시멘트 수출의 주시

장인 일본시장마저도 수출물량의 대폭적인 감소로 한국산 시멘트 輸入出荷基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시멘트 업계는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新·増設工事を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수급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시멘트 수요 신장세 둔화에 대비하여 輸出基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고 기존 輸出市場의 유지와 아울러 소련을 비롯한 신시장 開拓努力 등으로 새로운 수출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멘트는 重量貨物性, 需要의 季節性, 産地와 消費地의 偏在 등의 특성과 石炭輸送과의 결합 등으로 輸送上의 애로가 클뿐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물동량에 상응하는 수송수단이 충족되지 못하여 수송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輸送體系의 効率化 및 輸送手段과 流通基地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수요증가에 따른 製品輸送問題를 緩和하기 위해서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벌크시멘트의 출하비율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며 海運輸送과 出荷基地의 擴大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